



평등으로 한 걸음, 더 따뜻한 경기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의 분포와 정책적 함의

김 영 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백 소 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1. 들어가며
2.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구성
3.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4. 정책적 함의

「이슈분석」 제277호(23-29)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발행인 김혜순

발행일 2023년 12월 20일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쇄 디자인팀 031)236-3883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이슈분석」은 여성가족 분야 정책이슈와 주요 통계·제도 등 정책환경과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의 정책대응 방향을 제안하는 발간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 발간되며, 재단 홈페이지(www.gwff.kr)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메일링 신청을 통해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31-220-3900)

요 약

- **지난 10년간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전국 외국인주민의 33.5%이자 경기도 총인구의 5.2%인 714,497명을 기록함.**
 -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고 유학생과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비율은 낮은 구조임.
 -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여성이 많고,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는 30대, 유학생은 20대가 많으며, 가장 많은 (이전)국적은 동북아시아임.
 - 경기도 외국인주민은 고연령층이 많고, 동북아시아 국적의 비율이 특히 높은 특징임.
 - 외국인주민은 안산을 중심으로 경기서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과천, 구리 등 서울 인접한 소도시지역은 희소함.
 - 외국인근로자는 화성시, 유학생은 수원시,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주민자녀는 안산시에 가장 많이 거주함.
 -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는 특정 지역 집중정도가 높은 체류자격으로, 이들은 4~5개 지역에 절반 혹은 그 이상의 해당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는 4개 지역에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42.5%, 유학생은 5개 지역에 58.3%, 그리고 외국국적동포는 4개 지역에 51.8%가 거주함.
- **지역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외국인주민 분포 특성을 고려, 집중거주지 중심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은 농촌지역 정책, 그리고 체류자격 특화 정책이 필요함.**
 - 안산 등 집중거주지는 향후 외국인주민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지역정책 중 외국인주민대상 정책과 다문화친화적 지역사회정책에 역점이 필요함.
 - 과천 등 희소거주 지자체는 인근 지역과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공유하는 등의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천 등 농촌지역은 외국인주민이 미래의 농촌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현재는 결혼이민자 등 특정 체류자격 위주 정책이나, 향후 지역별 다양한 체류자격의 정책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목 차

| | |
|--------------------------------|----|
| 1. 들어가며 | 1 |
| 2.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구성 | 3 |
| 가. 외국인주민의 규모 | 3 |
| 나. 외국인주민의 구성 | 5 |
| 3.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 10 |
| 4. 정책적 함의 | 18 |

1. 들어가며

“외국인주민은 우리사회에 다양한 목적으로 유입 중이며, 이와 관련한 경기도 및 31개 지역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외국인주민의 인구분포 특성 파악이 가장 우선”

- 외국인주민은 노동, 결혼, 교육, 그리고 동포귀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사회에 유입되고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이나, 현재 210만 명이 넘는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이는 총인구의 4%가 넘는 수준임 (행정안전부, 2022). 또한 최근 들어 ‘이민청 신설’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지속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로 외국인주민 유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
- 행정안전부(2022)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에는 총인구의 5.2%에 달하는 714,497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경기도는 명실상부하게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임. 또한 경기도에는 저마다 다양한 외국인인구의 특성을 지닌 31개의 기초자치체가 있어서, 다양한 외국인주민 인구구성을 고려한 외국인주민 정책의 필요성이 있음. 외국인주민의 유입과 그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증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지만(박세훈·정소양, 2010), 다른 측면으로 우리사회에 계층 간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 본 글에서는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하여 다문화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함. 외국인주민 유입에 부응하는 경기도 지역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외국인주민의 특성 파악이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임. 특히 입국 목적과 관련되는 체류자격을 중심으로 분포의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외국인주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본 글에서 활용하는 통계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임. 이 자료는 소재지의 거주 외국인을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간분포 자료로서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음([그림 1] 참조).

- 본 글에서 ‘외국인주민’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에서 제시하는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귀화자) 및 그 자녀¹⁾’로 정의함.
- 즉 외국인주민은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출생 시 또는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이주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 유럽연합에서 사용하는 구분기준(person with a migratory background)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함(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그림 1]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2022)’ 개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목적 : 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 출신의 이주민에 대한 성별, 국적 등 기본현황을 파악하여 이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사회 커뮤니티 조성 등 지역사회 정착지원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작성대상 범위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자녀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통계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국내미체류자는 제외함. ○ 주요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 : 체류자격이 교수 등 취업분야(E1 ~ E7, E9~E10), 방문취업(H-2)인 자 - 결혼이민자 :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 유학생 : 체류자격이 유학(D-2-1~8), 일반연수(D-4) 중 대학부설 여학원 연수(D-4-1), 외국어연수생(D-4-7)인 자 - 외국국적동포 :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중 국내 거소신고자 - 기타(외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 기업투자, 취재 등 체류자격이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단기체류기간 초과 불법체류자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 제외 - 외국인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의 자녀, 외국인주민자녀(출생)는 외국인 또는 귀화한 자의 자녀로서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미성년자만 집계 |
|---|

자료 : 통계청 설명자료.

1) 외국인주민 자녀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도 포함됨.

2.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구성

가. 외국인주민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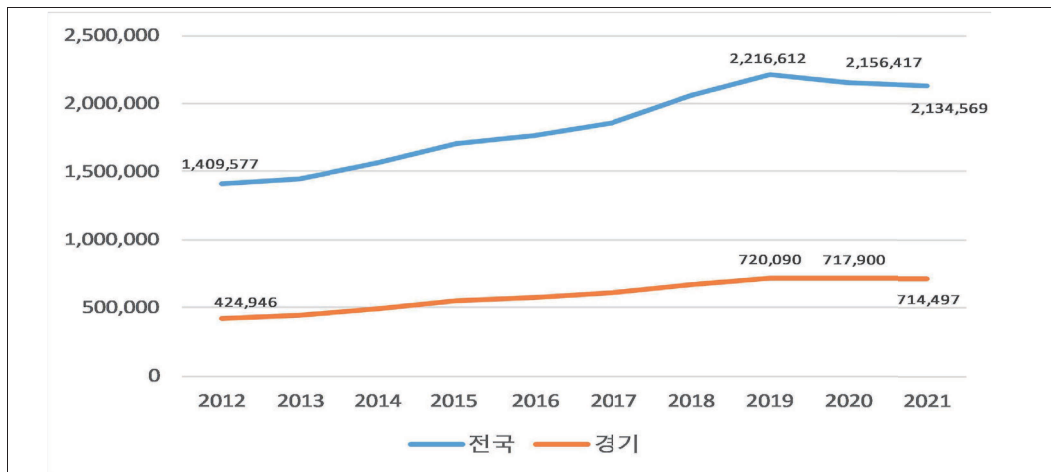
“지난 10년간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전국 외국인주민의 33.5%이자 경기도 총인구의 5.2%인 714,497명”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고 유학생과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비율은 낮은 구조”

- 10년 전 전국의 외국인주민 수는 1,409,577명이었으나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코로나 19 직전인 2019년 2,216,61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57.3% 성장하였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에 증가세가 멈추었으나 여전히 21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임.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규모도 전국과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 외국인주민 수는 424,946명(전국의 30.1%)이었고, 이후 증가하여 2019년 720,090명으로 정점을 찍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으로, 2021년 외국인주민 수는 714,497명(전국의 33.5%)으로 나타남. 즉 외국인주민의 규모 뿐 아니라 전국 대비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비율 또한 증가하였음([그림 2] 참조).

[그림 2] 전국 및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증가 추이

(단위: 명)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표 1]은 현재 전국 및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임. 경기도의 총인구 13,652,529명 중 외국인주민은 714,497명으로 5.2%에 이룸. 전국의 외국인주민 수가 2,134,569명으로 전국 총인구의 4.1%인 것과 비교하면,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비율이 전국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
- 다른 한편 경기도의 총인구는 전국의 26.4%이지만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인구는 전국 외국인주민 인구의 33.5%인 것으로 나타나, 이 수치로도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인주민의 유형을 보면, 전국과 경기도 모두 공통적으로 기타외국인(각각 554,972명과 183,232명)이 가장 많았음. 그러나 그 다음으로 전국은 외국인근로자(395,175명), 외국국적동포(368,581명) 순으로 많고, 경기도는 외국국적동포(160,110명), 외국인근로자(151,037명) 순으로 많아서, 경기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전국대비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비율을 보아도 알 수 있음. 즉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전국 외국국적동포의 43.4%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38.2%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 반면에 유학생의 경우는 전국 유학생의 14.3%만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또한 전국의 26.5% 수준으로 평균 비율(33.5%)에 비해 낮게 나타남.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전국의 31.2% 수준으로 평균 비율보다 낮은 편임.

[표 1] 전국 및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 구분 | 총인구 | 외국인 주민 계 |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 | | | 국적 취득 자 | 외국인 주민 자녀 (출생) | |
|-----|-----------------------|----------------------|----------------------|--------------------|--------------------|--------------------|--------------------|--------------------|-------------------------|--------------------|
| | | | 소계 | 외국인 근로자 | 결혼 이민 자 | 유학생 | 외국 국적 동포 | | | 기타 외국 인 |
| 전국 | 51,738,071 (100.0) | 2,134,569 (100.0) | 1,649,967 (100.0) | 395,175 (100.0) | 174,632 (100.0) | 156,607 (100.0) | 368,581 (100.0) | 554,972 (100.0) | 210,880 (100.0) | 273,722 (100.0) |
| 경기도 | 13,652,529 (26.4) | 714,497 (33.5) | 571,204 (34.6) | 151,037 (38.2) | 54,467 (31.2) | 22,358 (14.3) | 160,110 (43.4) | 183,232 (33.0) | 70,768 (33.6) | 72,525 (26.5) |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나. 외국인주민의 구성

“외국인근로자는 남성이,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는 여성이 많고,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는 30대, 유학생은 20대가 많으며, 가장 많은 (이전)국적은 동북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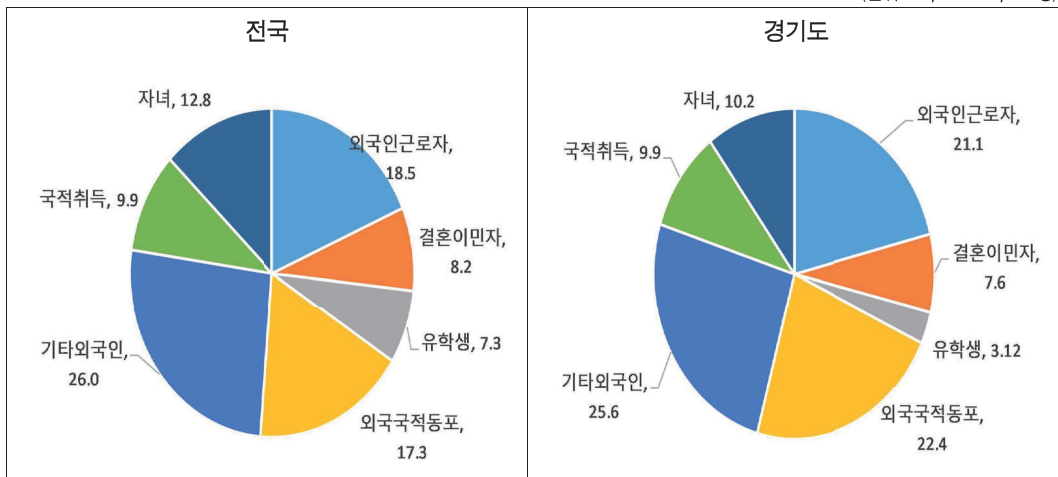
“경기도 외국인주민은 고연령층이 많고, 동북아시아 국적의 비율이 특히 높은 특징”

1) 유형별 구성

- 전국 외국인주민의 유형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기타외국인(26%)이 가장 높으며 외국인주민 4명 중 1명은 기타외국인임. 다음은 외국인근로자(18.5%), 외국국적동포(17.3%), 외국인주민 자녀(12.8%), 국적취득자(9.9%), 결혼이민자(8.2%), 그리고 유학생(7.3%) 순임.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구성 비율 또한 기타외국인(25.6%)이 가장 높고, 외국국적동포(22.4%), 외국인근로자(21.1%), 외국인주민 자녀(10.2%), 국적취득자(9.9%), 결혼이민자(7.6%), 그리고 유학생(3.1%) 순임([그림 3] 참조).
- 전국은 경기도에 비해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 자녀, 결혼이민자, 유학생의 비율이 높고,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높음. 국적취득자 비율은 9.9%로 전국과 경기도가 동일함.

[그림 3]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단위: %, N=714,497명)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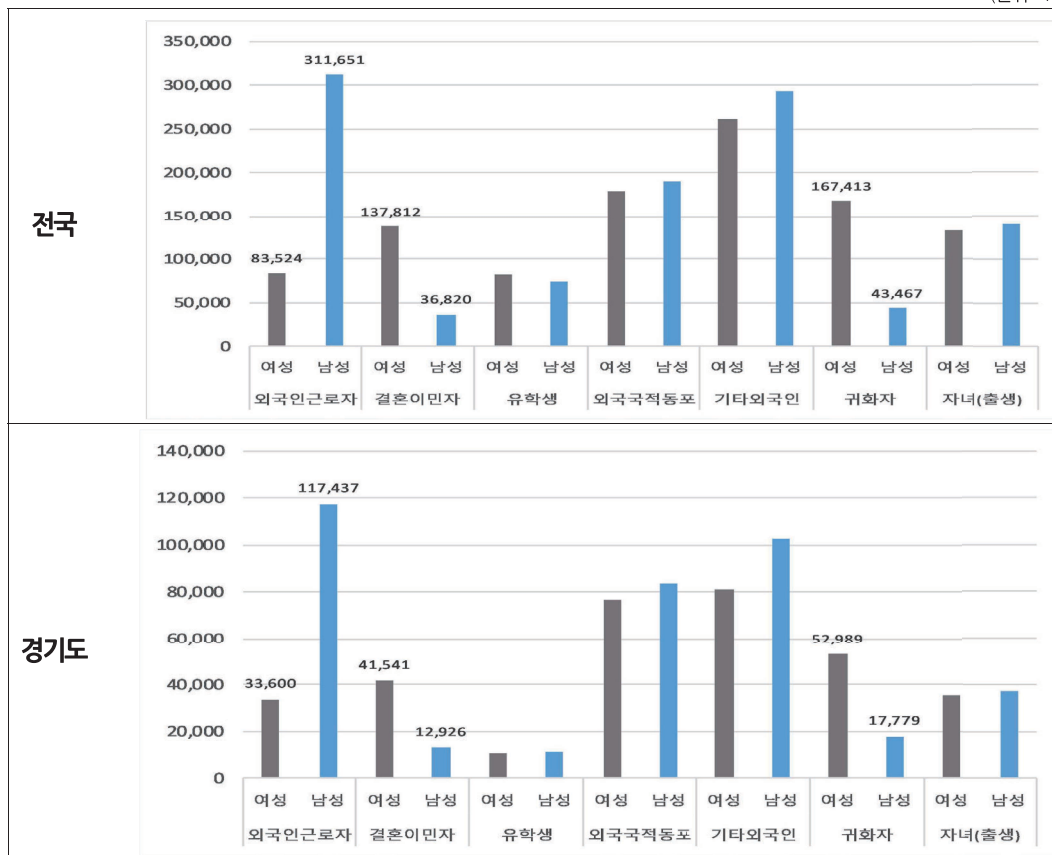
2) 성별 구성

○ 외국인주민의 성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가 [그림 4]에 나타나 있음. 전국과 경기도 모두 외국인주민의 유형에 따라 성별 구성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외국인주민 자녀(출생)는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많고, 결혼이민자, 유학생, 귀화자는 여성의 수가 남성보다 많음.

- 특히 성별 차이가 두드러진 유형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귀화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 총 151,037명 중 77.8%인 117,437명이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총 54,467명의 결혼이민자 중 76.3%인 41,541명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됨. 또한 총 70,768명의 경기도 귀화자 또한 대다수인 74.9%(52,989명)가 여성임.

[그림 4]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성별 구성

(단위: %)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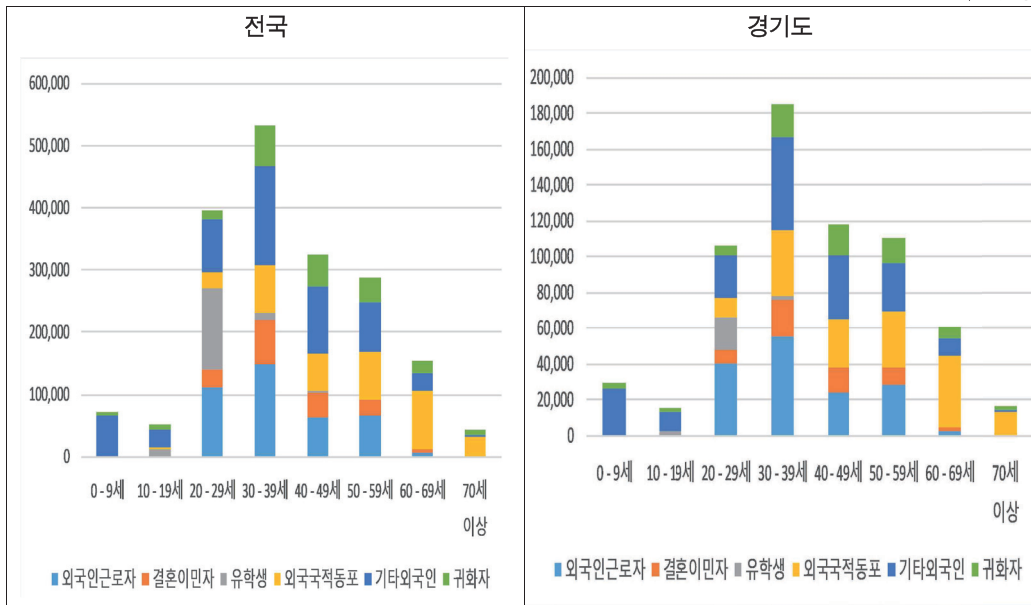
3) 연령별 구성

○ [그림 5]는 외국인주민의 연령별 구성으로, 전국의 경우 30~39세(532,251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0~29세(397,138명), 40~49세(286,526명) 순임. 경기도의 경우는 전국과 마찬가지로 30~39세가 185,44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은 40~49세(118,043명), 50~59세(110,391명) 순으로 나타나서 전국에 비해 고연령 집단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외국인주민의 유형별 연령 분포는 전국과 경기도가 유사하게 나타남. 즉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20~29세에서 70세 이상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지만, 타유형과 비교할 때 특히 60~69세와 7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수가 많음.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30~39세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20~29세에서 50~59세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그 밖에 결혼이민자는 30~39세, 유학생은 20~29세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임.

[그림 5]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연령별 구성

(단위: 명)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주: 외국인주민 자녀 제외

4) 국적별 구성

○ 외국인주민의 국적별²⁾ 구성을 살펴본 결과가 [그림 6]에 나타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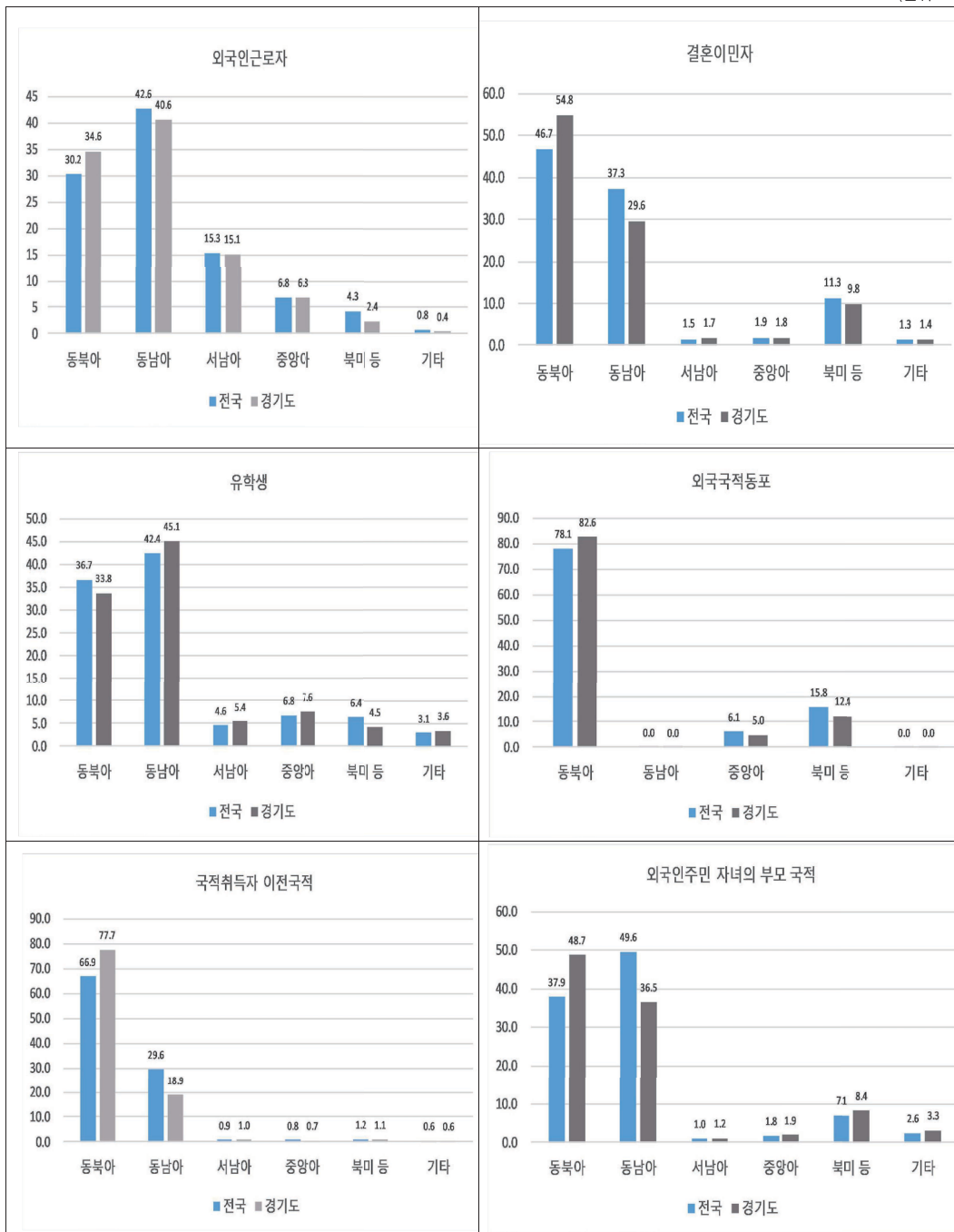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의 출신국적은 전국과 경기도 모두 동남아시아가 가장 많고,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34.6%)의 경우는 전국(30.2%)에 비해 동북아시아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음.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동북아시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동남아시아와 북미 등이 뒤를 잇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54.8%)는 전국(46.7%)에 비해 동북아시아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유학생의 경우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 동남아시아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그 다음은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순임.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동남아시아(45.1%)와 서남아시아(5.4%), 중앙아시아(7.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외국국적동포는 절대다수가 동북아시아이며(전국 78.1%, 경기도 82.6%), 그 다음은 북미 등(전국 15.8%, 경기도 12.4%), 중앙아시아(전국 6.1%, 경기도 5.0%) 순임.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비율이 더욱 높았음.
- 외국인주민 중 국적취득자의 이전국적을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그 다음은 동남아시아, 북미 등의 순으로 나타남.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 동북아시아의 비율(전국 66.9%, 경기도 77.7%)이 현저하게 높고, 서남아시아의 비율(전국 0.9%, 경기도 1.0%) 또한 높은 편임.
- 외국인주민 자녀(출생)의 부모 국적은 전국과 경기도의 경우가 다소 상이한 편임. 전국의 경우 동남아시아 비율이 49.6%로 가장 높고, 동북아시아 37.9%, 북미 등 7.1% 순이며, 경기도의 경우는 동남아시아보다 동북아시아 비율이 48.7%로 가장 높았고, 동남아시아 36.5%, 북미 등 8.4% 순으로 나타남.

2) 여기에서 국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함.

- 동북아시아: 중국, 중국(한국계), 대만, 일본, 몽골
-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동티모르, 기타
- 서남아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기타
-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기타
- 북미 등: 미국, 캐나다, 유럽(러시아, 러시아(한국계), 영국, 기타), 오세아니아
- 기타: 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기타), 기타

[그림 6] 전국 및 경기도 외국인주민 국적분포

(단위: %)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3. 경기도 외국인주민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외국인주민은 안산을 중심으로 경기서남부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과천, 구리 등 서울 인접한 소도시지역 거주자는 작아”

“체류자격별로 외국인근로자는 화성시, 유학생은 수원시, 나머지는 안산시에 가장 많이 거주,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는 특징지역 집중정도가 높아”

○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수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가 [그림 7]에 나타나 있음.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안산시로, 전체(714,497명)의 13.3%인 94,941명이 거주하고 있음. 그 외 5만 명 이상의 외국인주민이 사는 지역은 수원시(65,885명), 시흥시(64,570명), 화성시(62,542명), 부천시(53,080명)로 이들은 경기도 남서부지역에 위치한 비교적 인구규모가 큰 지역임. 이 5개 지역 외국인주민 인구는 총 341,018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7%에 이룸. 평택시(41,240명), 김포시(31,650명), 용인시(31,138명) 등 경기남부 도농복합지역의 외국인주민 수도 3만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인구수 자체가 작은 연천군(1,655명), 가평군(2,356명), 양평군(3,180명) 등 농업기반 지역과 서울에 인접한 소도시지역인 과천시(591명), 의왕시(2,364명), 구리시(3,071명) 등은 외국인주민수가 작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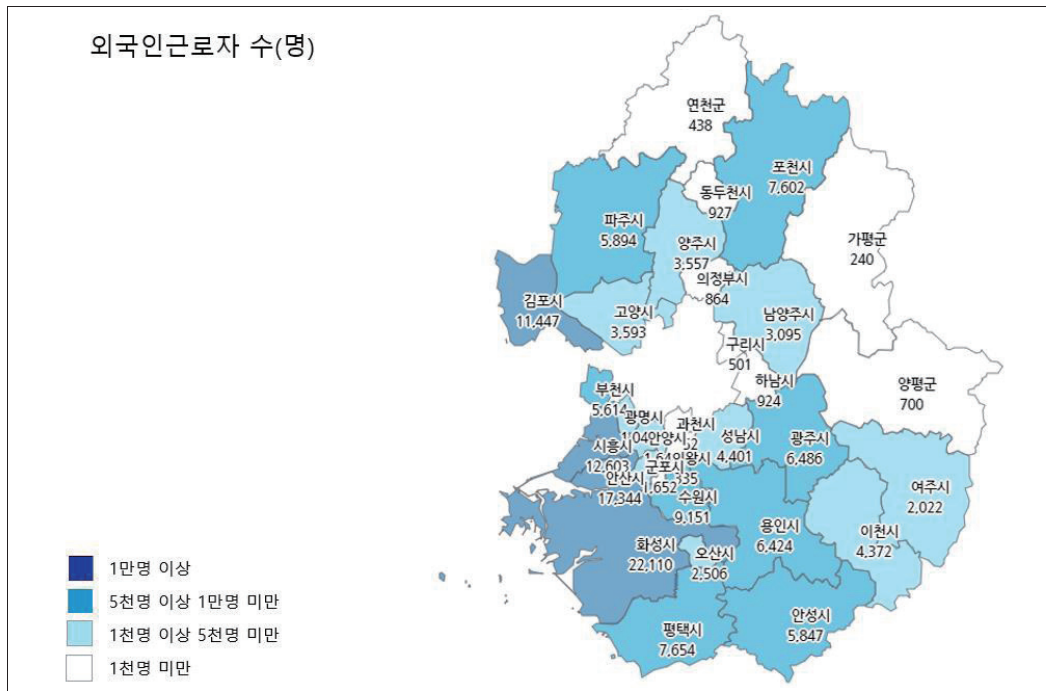
○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의 인구와 비율 분포는 일치하지 않음. 도 전체 외국인주민 비율은 5.2%이고,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안산시(13.2%)로 나타나, 안산시는 도 내에서 외국인주민 수와 비율 모두 가장 높은 지역임. 그러나 안산시 외에 두 자리수의 외국인주민 비율인 지역은 포천시 11.8%, 시흥시 11.7%, 안성시 10%로 나타남. 즉 포천시와 안성시의 경우는 인구수대비 외국인주민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인구규모와 비율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았음([그림 8] 참조).

-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인접한 소도시 지역으로, 과천시(0.9%) 의왕시(1.5%), 구리시(1.6%), 하남시(1.7%) 순임. 농촌지역으로 외국인주민 인구수가 작았던 양평군(2.8%), 가평군(3.9%), 연천군(4%)의 외국인주민 비율은 앞의 서울 인근 소도시 지역만큼 낮지는 않았으나, 경기도 평균보다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1) 외국인근로자

- 경기도 외국인근로자는 151,037명으로, 외국국적동포(160,110명)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외국인주민 집단임. 외국인근로자는 지역 집중정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지역은 화성시로 22,110명으로 기록됨. 화성시는 외국인근로자 2만 명이 넘는 유일한 지역으로, 도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14.6%가 화성시에 거주함. 그 외에 안산시(17,344명), 시흥시(12,603명), 그리고 김포시(11,447명)에 1만 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 네 지역 외국인근로자수는 도전체 외국인근로자의 무려 42%에 이룸. 즉 외국인근로자는 특정 지역의 인구집중도 높고, 산업단지 등 제조업체가 밀집된 지역에 집중거주하고 있음.
- 반면에, 가평군(240명), 연천군(438명), 양평군(700명)의 군단위 농촌지역과 서울에 인접한 소규모 도시인 과천시(52명), 의왕시(335명), 구리시(501명) 등은 외국인근로자가 1천 명 미만으로 작은 지역임.

[그림 9] 경기도 시군별 외국인근로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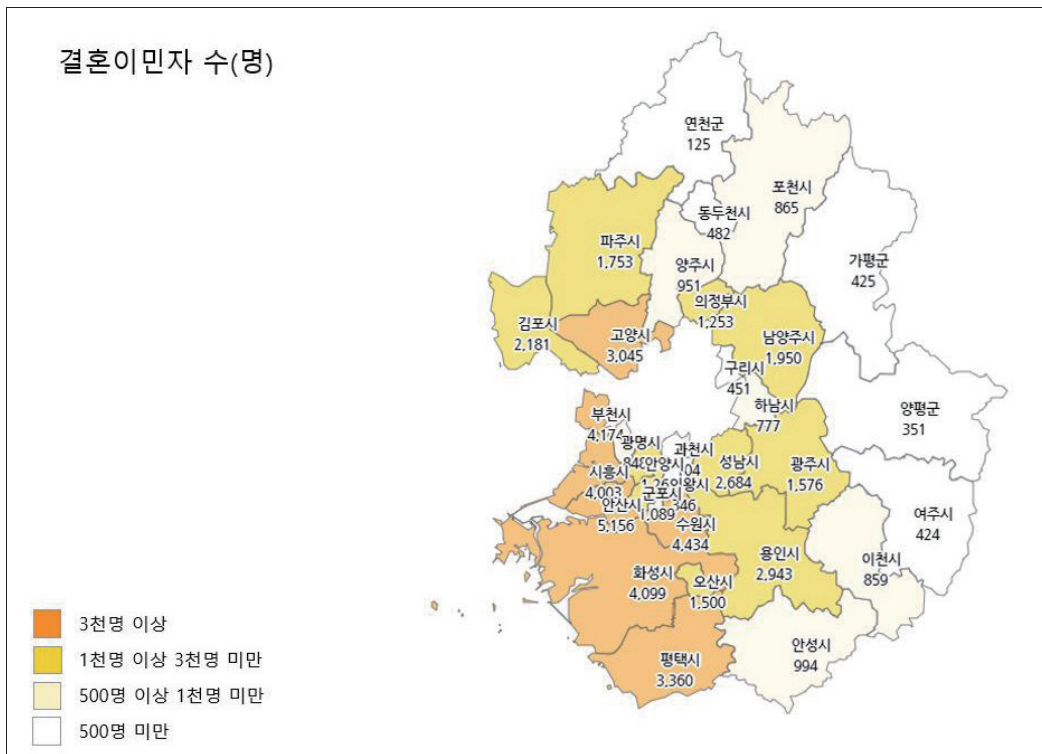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결혼이민자

- 도내 귀화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수는 54,467명이고,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안산시(5,156명)로, 안산시의 결혼이민자 규모는 도내 결혼이민자의 9.5% 수준임. 그 밖에 수원시(4,434명), 부천시(4,174명), 화성시(4,099명), 시흥시(4,003명), 평택시(3,360명), 그리고 경기북부 고양시(3,045명)의 총 7개 지역이 3천 명 이상의 결혼이민자 거주지역임. 서해에 인접한 세 지역인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분포 또한 최상위인 것으로 나타남.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천군(125명), 양평군(351명), 가평군(425명), 그리고 여주시(424명) 등 농촌지역과 과천시(104명), 구리시(451명) 등 서울 인접지역은 결혼이민자의 수가 500명 미만에 불과함.

[그림 10] 경기도 시군별 결혼이민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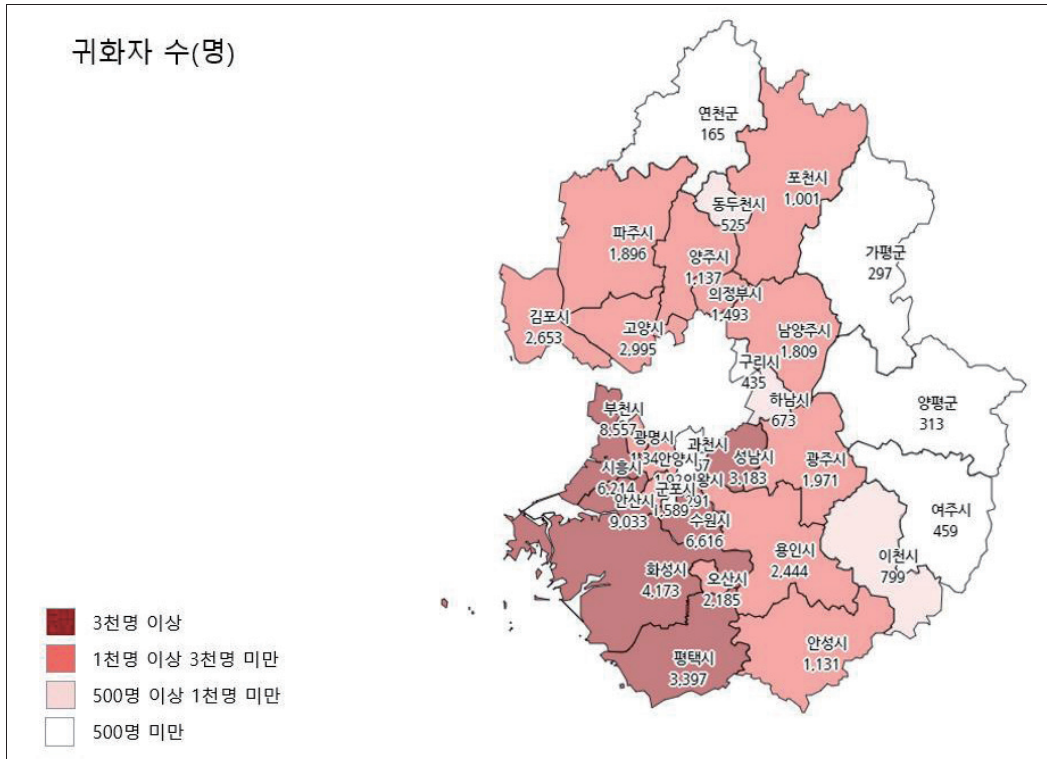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3) 귀화자

- 귀화자의 다수가 혼인으로 인한 귀화로 귀화자의 지역 분포의 특징은 결혼이민자와 유사하게 나타남. 경기도 전체 귀화자 수는 70,768명으로 결혼이민자 수(54,467명)보다 많은데, 경기도의 서남부지역에 3천 명 이상의 귀화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많고, 동부지역에는 귀화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가장 많은 귀화자가 사는 지역은 결혼이민자 수가 5,156명으로 가장 많았던 안산시(9,033명)로 나타남. 안산시의 귀화자는 도전체 귀화자의 12.8%일 정도로 높음. 그 외에 부천시(8,557명), 수원시(6,616명), 시흥시(6,214명)에도 5천 명이 넘는 많은 귀화자가 거주 중임.
- 농촌지역인 연천군(165명), 가평군(297명), 양평군(313명), 여주시(459명)에는 500명 미만의 귀화자가 거주하고 있고, 과천시(67명)와 의왕시(291명)에도 500명 미만의 귀화자가 거주 중임.

[그림 11] 경기도 시군별 귀화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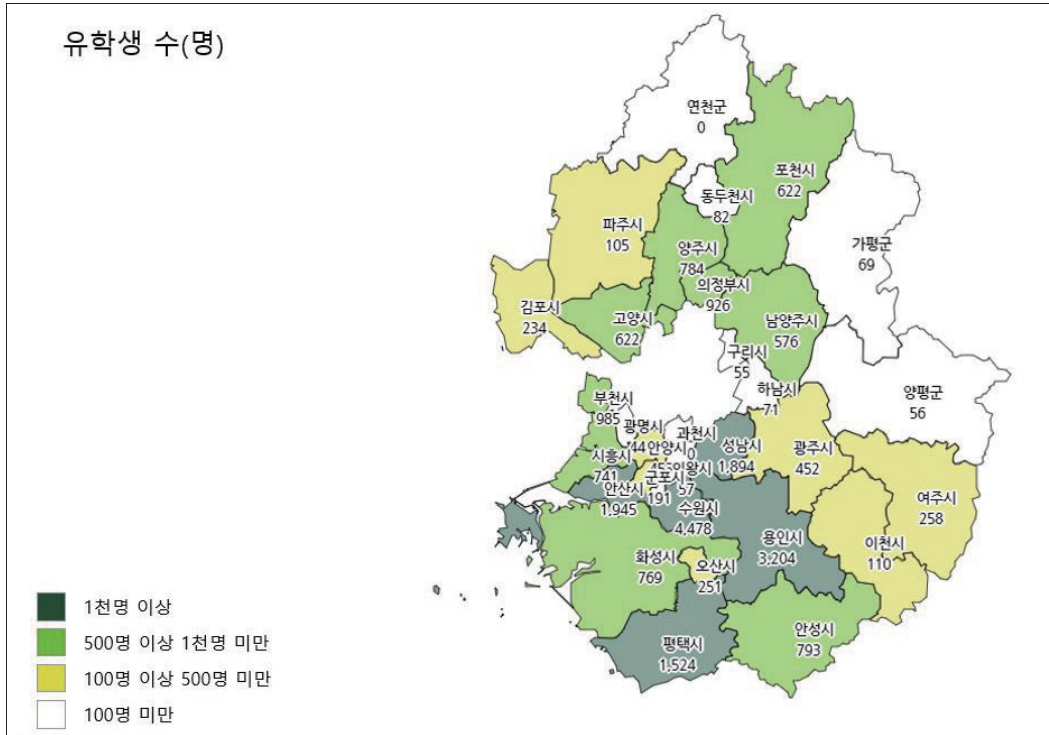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4) 유학생

- 경기도에는 22,358명의 유학생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학생 분포는 이 체류 자격의 특성상 대학캠퍼스가 위치한 지역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수원시에는 도내 유학생의 20%인 4,478명의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어 가장 많은 유학생이 분포하는 지역임. 도내 유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수원시에 거주 중임. 그 다음으로 용인시 3,204명, 안산시 1,945명, 성남시 1,894명, 평택시 1,524명 순으로 나타났고, 이 다섯 지역은 외국인 유학생 인구가 1천 명 이상인 지역임. 외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학생 또한 특정지역 집중정도가 높아서, 이상의 다섯 지역에 도 전체 유학생의 절반이 넘는 58.3%가 거주하고 있음.
- 연천군에는 한 명의 유학생도 없는 것으로 집계되며, 그 외에도 대학이 없거나 소수인 지역인 양평군(56명), 가평군(69명), 그리고 동두천시(82명)에는 유학생이 10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경기도 시군별 유학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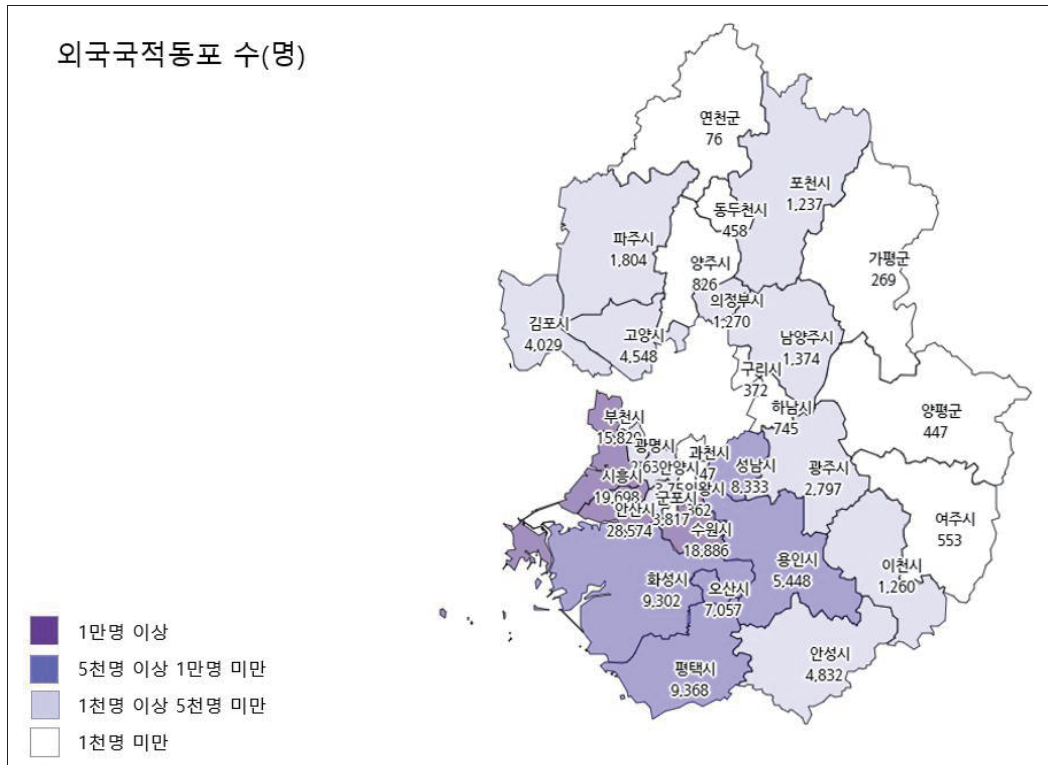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5) 외국국적동포

○ 경기도에는 160,110명의 외국국적동포가 거주하고 있어 외국인주민 중 가장 큰 규모의 체류자격 집단임. 외국국적동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외국국적동포의 17.8%인 28,574명이 거주 중인 안산시임. 다음으로 시흥시에는 19,698명, 수원시 18,886명, 부천시 15,829명 순으로, 이 네 지역에는 1만 명 이상의 외국국적동포가 살고 있고, 이는 도 전체 외국국적동포의 절반인 51.8%임. 외국국적동포가 5천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평택시(9,368명), 화성시(9,302명), 성남시(8,333명), 오산시(7,057명), 그리고 용인시(5,448명)로 경기도 남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오산시의 경우 특징적으로 도시 인구규모에 비해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거주하고 있음.

- 연천군(76명), 과천시(147명), 가평군(269명), 의왕시(362명), 양평군(447명), 여주시(553명), 하남시(745명) 등 경기도 농촌지역과 서울 인근 소도시에는 외국국적동포수가 작음.

[그림 13] 경기도 시군별 외국국적동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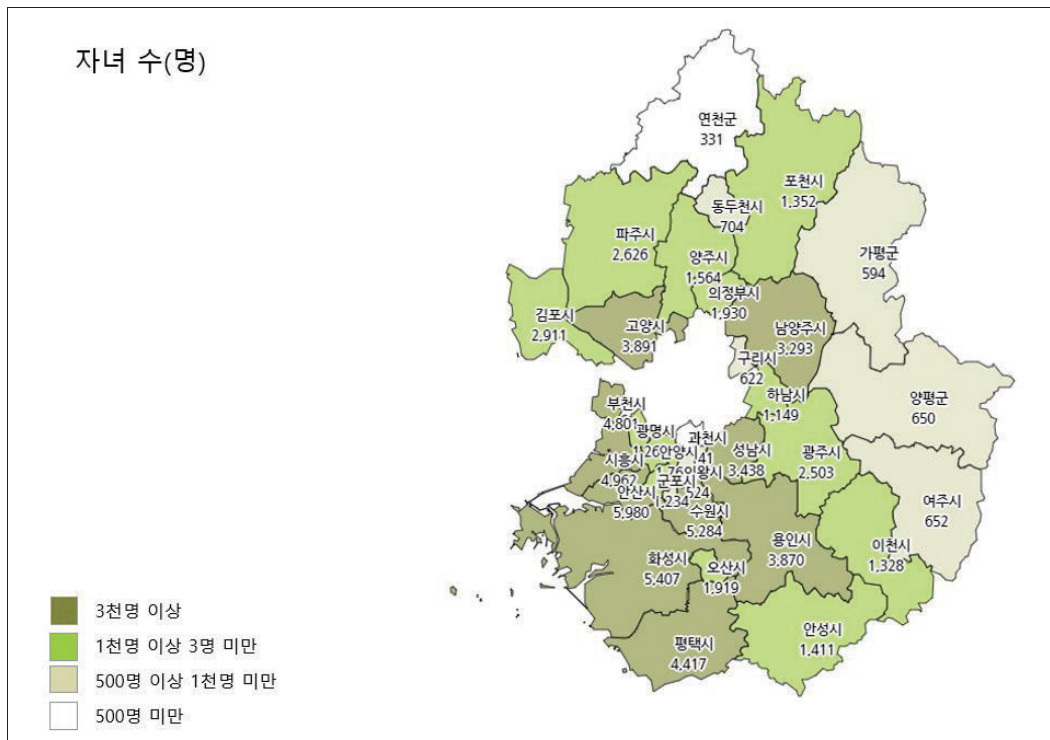


자료 : 행정안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6) 외국인주민 자녀

6) 외국인주민 자녀

- 도내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수는 72,525명으로 집계되며, 가장 많은 외국인주민 자녀(출생)가 거주하는 지역은 도 전체의 8.2%인 5,980명이 거주하는 안산시로 나타남. 안산시는 전체 외국인주민 수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임과 동시에, 결혼이민자, 귀화자, 외국국적동포에 이어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도 가장 많은 지역임. 그 외에 외국인주민 자녀가 3천 명 넘게 분포하는 지역은 경기남부에 화성시(5,407명), 수원시(5,284명), 시흥시(4,962명), 부천시(4,801명), 평택시(4,417명), 용인시(3,870명), 그리고 성남시(3,438명)가 있고, 경기북부 지역인 고양시(3,891명)와 남양주시(3,293명)에도 3천 명이 넘는 외국인주민 자녀가 거주하고 있음.
- 외국인주민 자녀수가 500명 미만인 지역은 141명인 과천시와 331명인 연천군의 두 지역임.

[그림 14] 경기도 시군별 외국인주민 자녀 분포



전부, 2022. 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4. 정책적 함의

“지역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외국인주민 분포 특성을 고려, 집중거주지 중심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은 농촌 지역 정책, 그리고 체류자격 특화 정책이 필요”

- 지역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중앙정부의 출입국 관련 정책과는 구분되는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함. 지역사회는 외국인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타국생활에 대한 적응과 정착을 도모하는 일차적인 장소이기 때문임. 본 글에서는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주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유형별 외국인주민 분포를 살펴보았음. 이를 통해 나타난 몇 가지 결과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먼저, 경기도에는 ‘서남부지역 대도시’에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음. 외국인주민 인구수와 인구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안산시를 필두로 수원시, 화성시, 시흥시, 부천시의 5개 지역에 외국인주민이 절반 가까이(47.7%) 살고 있음. 이러한 수치는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도내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장 및 공동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대부분 직장 또는 공동체 중심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체류목적지 주변에 거주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고자 하며, 기존 공동체 인근에 거주하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등을 얻고 모국출신 이주민과의 친목도모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임(이진영·남진, 2012). 이러한 이유로 안산시 등 집중거주지는 향후로도 외국인주민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역은 다양한 지역정책 중 외국인주민대상 정책과 다문화친화적 지역사회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 등 서울인접 소규모 인구 도시는 현재 외국인주민이 희소한 지역으로, 지역사회에서 소수집단인 이들이 주류사회에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또한 이들 외국인주민 희소거주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공동체사업을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등의 시도가 필요함. 아울러 농촌지역인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은 외국인주민의 수가 작지만 총인구도 작아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과천시 등 서울인접 소도시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인구감소의 위기에 놓여있는 이들 농촌지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임. 따라서 향후 이들이 미래의 농촌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중요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끝으로, 외국인주민의 체류자격별 분포를 보면,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그리고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특정지역 집중정도가 높은 편임. 예컨대, 외국인근로자는 4개 지역에 도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42.5%가 거주하고 있고, 유학생은 5개 지역에 58.3%, 그리고 외국국적동포는 4개 지역에 51.8%가 거주하여, 이들 체류자격은 4~5개 지역에 절반 혹은 그 이상의 해당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개별 시군별로 보면, 외국인근로자는 화성시(도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14.6%)에 가장 많고, 유학생은 수원시(도 전체 유학생의 20.2%)에 가장 많이 거주함. 안산시에는 결혼이민자(도 전체 결혼이민자의 9.9%), 귀화자(도 전체 귀화자의 12.8%), 외국국적동포(도 전체 외국국적동포의 17.8%), 그리고 외국인주민 자녀(도 전체 외국인주민 자녀의 8.2%)가 가장 많이 분포함. 현재의 외국인주민 정책은 시·군별 외국인주민의 체류자격별 분포 유형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음. 앞으로 외국인주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체류자격의 정책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예컨대 연천군에는 한 명의 유학생도 없지만, 수원시에는 도전체 유학생 5명 가운데 1명이 거주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문헌 자료

박세훈·정소양(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제64권 : pp.59-76.

이영민·김수정(2017). 인천시 외국인 이주자의 분포 특성과 다문화 로컬리티에 대한 예비적 연구: 출신국가와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로컬리티 인문학 제17권 : pp.197-238.

이진영·남진(2012). 수도권에서 외국인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7권 1호 : pp.85-100.

보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 2023년 2월 22일